

국가별 동향



덴마크

농장에 CO<sub>2</sub> 세금 부과하는 첫 국가 될 듯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990년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임한 전문가들이 2월에 처음으로 세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으로 2030년에 농부들에게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 크라운(약 59,937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2035년까지는 750크라운(약 149,865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농부들은 60%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는 실제 비용이 톤당 120크라운(약 23,985원)에서 시작하여 2035년까지 300크라운(약 59,937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장 운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 Poultry Site]



우즈베키스탄

가금류 기업 5년간 토지세 면제



지난 6월 25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제안했다. 세계 가금류 유전학 시장의 80%는 미국 회사 소유이다. 따라서 가금류 농장에 유전 기술을 도입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번식 농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계업에 클러스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성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 기업가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가금류

기업은 5년간 토지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제한되어 있었던 가금류 고기 수출이 허용된다. 기업가에게 제공된 3,500만 달러의 자원에 대한 반환 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또한 대통령은 사료의 재고를 늘리고 중앙 집중적으로 가금류 농장에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Kun.uz]



## 미국

### 맥도날드, 닭고기에 집중 투자 중



맥도날드 미국 지사 사장인 조 엘링거는 6월 25일 시카고에서 열린 Wall Street Journal 글로벌 식품 포럼에서 맥도날드의 전형적인 고객이 식물성 단백질이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보다 닭고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메뉴 개발 과정에서 닭고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엘링거는 “단백질 소비의 주요 트렌드는 닭고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트렌드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닭고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맥도날드는 소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많이 판매하고 있어, 닭고기 소비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닭고기는 매우 좋은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WATTPoultry]



## 영국

### 양계·양돈 박람회 개최



2004년에 처음 개최된 이 연례 대회는 올해 스와턴 빈티지 데이에 열렸다. 메인 이벤트는 처음에 33피트(10m)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 ‘캐처’에게 계란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거리가 늘어난다. 세계 계란 던지기 연맹(WEF)의 앤디 던롭 회장은 이 행사의 뿌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지역 수도사들이 지금의 브

리젠드의 강가에 교회를 지을 때, 예배자에게 계란을 주어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강물이 높으면 수도사들이 물 건너 사람들에게 계란을 던진 것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회장은 잡는 기술은 시속 120마일의 속도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종목에서는 일종의 투석기인 트레뷰셋을 사용해 계란을 던진다. 회장은 시속 120마일(193km)보다 빠른 속도로 던지면 공중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BBC] **양계**